



개성 만점, 유럽 박물관 순례기

Unique Museums in West Europe

유럽에서 박물관은 학예의 여신에게 바친 신전에서 기원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설치된 자연과학 연구소가 효시다. 그래서 박물관, 혹은 미술관 건학을 따분한 일로 치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박물관은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이야기보따리이다. 유럽에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특별한 박물관이 숨어 있다. 글 박상현 기자 · 사진 연합뉴스 DB



독일 드레스덴 알테 마이스터 미술관

엘베 강이 흐르는 드레스덴은 구시가 자체가 미술관 같은 도시이다. 다리에서 바라보면 여러 건축양식이 혼합된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마치 수백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다. 알테 마이스터(Alte Meister) 미술관에 입장한 순간, 이러한 착각은 더욱 확고해진다.

프랑스에서 큰 미술관은 파리에 몰려 있고, 이탈리아의 유적은 로마에 가장 많다. 유럽에서도 수도에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독일만은 예외다. 베를린 역시 독일에서 가장 크고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한 도시이기도 하나, 분위기는 그다지고 풍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조 없이 고만고만한 귀족들이 난립해 왔던 탓이다.

독일 동부의 드레스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이다. 드레스덴에 거점을 둔 작센(Sachsen)의 제후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가 폴란드의 왕에 즉위했을 무렵이다.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는 제후국의 수도가 된 드레스덴에는 기이한 예술품이 몰려들었다.

드레스덴 구시가의 한복판에 자리한 츠빙거(Zwinger) 궁전에는 제후가 수집한 각종 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바로크 궁전의 걸작이자 드레스덴 예술의 정점이라 일컬어지는 공간에 무기 박물관, 조각 박물관, 수학 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다. 그중 백미는 궁전 북쪽의 켐퍼(Semper) 빌딩에 있는 알테 마이스터 미술관이다.

이곳에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작품이 다수인데, 거개가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의 아들인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가 모은 것이다. 선대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프로이센과의 전쟁에 패해 정치력을 상실했던 그는 음악과 미술을 탐미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일부 미술품이 소실됐으나 여전히 규모가 크다.

알테 마이스터 미술관은 방문자들이 미리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2007년 5월 온라인 미술관(www.dresdengallery.com)을 개장했다. 따라서 미술관에 들리기 전 훑어보면 좋다. 미술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하며, 월요일에는 문을 닫는다. 금·토·일요일 오후 4시에는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알테 마이스터 미술관은 알프스산맥 이북의 미술관 가운데 이탈리아 회화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다. 그래서 대표작도 이탈리아 화가 라파엘로가 그린 '시스티나 성모'이다.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발밑에서 아기 천사 두 명이 물끄러미 올려다보고 있는 낯익은 그림이다. 중세시대에는 진지하고 근엄한 표정을 지었던 천사들이 이 작품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다. 루벤스, 렘브란트 등 친숙한 화가의 회화와 함께 이목을 끄는 작품은 벨로토가 18세기 중반 드레스덴 시가지를 묘사한 풍경화이다. 엘베 강 너머로 드레스덴 성과 가톨릭 궁정교회 등이 오늘날과 똑같이 표현돼 있다. 시내를 오가는 전차가 없고, 사람들의 복식이 다른 점만 눈에 띈 뿐이다. 츠빙거 궁전에서 알테 마이스터 미술관과 함께 빠뜨리지 말아야 할 곳은 도자기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마이센(Meissen)의 자기와 300년 전쯤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해온 다양각색의 도자가 진열돼 있다.



지하철 1호선 아토차(Atocha) 역에서 내리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과 프라도 미술관을 모두 돌아볼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2시 30분까지) 개장하며, 화요일에는 문을 닫는다.
www.museoreinasofia.es



현대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4년 전 확장 공사를 통해 도서관과 회의실, 전시실 등을 새롭게 꾸미기도 했다. 미술관에는 회화 4천여 점, 조각 1천400여 점, 판화 5천여 점 등 총 1만6천여 점의 미술품이 있다.

스페인 현대미술의 명작들이 모여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가장 이름난 작품은 피카소의 '게르니카(Guernica)'이다.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던 1937년, 프랑코 독재 정권의 사주를 받은 독일 군대가 북부의 바스크 지방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게르니카를 폭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린 그림이다. 당시 파리에 있던 피카소는 한 달 동안 작업에 몰두해 전쟁의 공포와 참상을 드러내는 수작을 완성시켰다.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던 게르니카는 피카소 탄생 100주년인 1981년 스페인으로 돌아와 지금은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2층에 걸려 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서 피카소와 함께 인기를 끄는 작가는 미로와 달리이다. 미로는 바르셀로나 태생으로 초현실적인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인간의 형체를 단순화한 '파이프를 문 남자'가 인상적이다. 50점이 넘는 달리의 작품 가운데는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가하기 전에 그린 '창가의 소녀'에 관람객이 가장 많이 붐빈다.

미술관 4층은 팝아트나 미니멀 아트 등 20세기 중반과 후

스페인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불세출의 화가 '피카소'를 배출한 나라의 수도인 마드리드에는 파리 못지않게 미술관이 많다. 흔히 규모가 크고 지명도가 높은 작품을 보유한 프라도(Prado) 미술관, 티센 보르네미사(Thyssen-Bornemisza) 미술관, 레이나 소피아(Reina Sofia) 미술관을 묶어 마드리드 3대 미술관이라 칭한다. 이 가운데 현대미술을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먼저 들러야 한다.



반의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소재에 글씨를 휘갈겨 쓰거나 그림을 그렸던 타피에스를 비롯해 다양한 화가의 재기 넘치는 작품이 많다.

사실 마드리드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은 프라도 미술관이다. 스페인 왕실이 갖고 있던 회화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1819년 설립됐으며, 소장하고 있는 회화가 9천여 점에 이른다. 그리스 신전을 닮은 미술관 내부에는 엘 그레코, 벨라스케스, 고야 등 스페인 화가뿐만 아니라 티치아노와 루벤스의 작품도 있다.

프라도 미술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외관부터 남다르다. 18세기에 종합병원으로 지어진 건물을 1990년대 개축해 미술관으로 전용한 탓에



스위스 제네바 파텍 필립 박물관

스위스 제네바에는 유독 시계와 연관된 조형물이 많다. 기차역 옆의 호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시계가 설치돼 있고, 영국 공원에는 거대한 꽃시계가 있다. 제네바에 이처럼 눈길을 잡아끄는 시계가 많은 이유는 최고의 시계 회사들을 배태한 곳이기 때문이다.



벽시장이 서는 플랭팔레(Plainpalais) 인근에 있으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개방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영어 가이드 투어는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www.patekmuseum.com

파텍 필립(Patek Philippe)은 1839년 탄생한 시계 브랜드이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디자인이 독특한 시계를 생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2001년 문을 연 제네바의 파텍 필립 박물관은 창업주가문이 수집한 진귀한 시계들로 가득한 곳이다. 1919년에 세워진 건물을 1999년 수리해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4층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에서 시계는 2층과 3층을 중심으로 전시돼 있다. 1층에는 장인들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계를 제작하는 공정을 지켜볼 수 있는 관객석과 기념품 상점, 4층에는 파텍 필립의 고문서와 시계 전문 서적을 보관

하는 도서관이 있다. 최근까지 만들어진 파텍 필립의 시계들은 2층을 차지하고 있다. 근대 이후 제네바 시계 제작의 발전 과정을 대변하듯, 다채로운 회중시계와 손목시계가 진열돼 있다. 초창기의 시계는 거개가 회중시계였고, 귀족만이 소유할 수 있는 액세서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당시의 시계를 보면 덮개에 화려한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초시계처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시계와 손목시계는 각각 1851년과 1915년 세상에 출현해 변신을 거듭한다. 또한 세계 각국과의 시차를 계산할 수 있도록 시침 위에 도시명이 기록돼 있는 시계와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시계도 볼 수 있다. 문화재나 다름없는 고시계들은 3층에 있다. 유럽에서 시계가 최초로 나타난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시계가 주를 이룬다. 그때의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도구라기보다는 사치스러운 장식물에 가까웠다. 그래서 시계 표면에 화려한 세공이 돼 있거나 보석이 박혀 있기도 했다. 또한 터키에 판매하기 위해 보스포루스 해협의 풍경이 그려진 시계와 1747년에 태어난 프랑스의 시계 기술자인 브레게의 시계도 살펴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빈 음악의 집

청각 예술인 음악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오스트리아 빈의 좁은 골목에 있는 '음악의 집(Haus der Musik)'은 오감을 통해 소리와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이다. '음악의 나라'라는 표현에 걸맞은 전시물로 꾸며져 있다.

음악의 집을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상가가 밀집한 케른트너(Karntner) 거리에서 안나(Anna) 거리나 크루거(Kruger) 거리로 들어가면 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해 저녁식사를 한 뒤에도 방문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전시물과 체험 시설이 고루 구비돼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www.hdm.at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오스트리아에서 고전 음악은 일상이다.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요한 슈트라우스의 왈츠곡을 연주하며 새해를 알리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곳곳에서 콘서트와 음악회가 열린다. 모차르트가 태어난 잘츠부르크(Salzburg)에서는 여름마다 '음악'을 소재로 한 축제가 개최되기도 한다. 18세기 이후 빈은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클래식 중심 도시'였다. 빈에 거주하는 귀족들은 복잡한 세상사 대신 음악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고, 음악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후했다. 그래서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등 수많은 서양 음악의 거장이 빈을 거점으로 활동했고, 소질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빈으로 흘러들었다. 음악의 집은 오스트리아 음악 여행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 오스트리아에 뿌리 내렸던 음악가들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공부하고 친필 악보와 음악 관련 서적을 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빈 시내 여기저기에 위대한 작가들이 살았던 생가가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흔적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은 음악의 집이 유일하다. 단순히 음악에 대한 자료 일색이라면, 박물관이 재미있을 리 없다. 음악의 집이 흥미로운 이유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만질 수 있는 시설이 많아서이다. 주변에서 나는 다양한 소음을 선택해 들어보고, 지휘자로 변신해 지휘봉을 휘두르며 악단을 이끌 수 있다. 손놀림에 따라 곡의 속도와 박자가 달라지는 광경이 무척 신기하다.



프랑스 파리 프라고나르 향수 박물관

라틴어로 '연기를 통한다'는 뜻의 페르푸뎀(Per Fumum)에서 파생된 단어인 향수(Perfume)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화장품이다. 5천 년 전부터 신과의 교류를 위해 사용됐던 향수는 어떻게 진화해 왔을까. 프라고나르(Fragonard) 향수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다.



파리 지하철 3, 7, 8호선이 지나는 오페라(Opéra) 역에서 내려 걸으면 닿는다. 주변에 프랑탕, 갤러리 라피에트 등 큰 백화점이 있어서 쇼핑을 겸해 둘러도 좋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장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후 5시에 문을 닫는다. www.fragonard.com



모든 향기를 귀신같이 맡지만, 정작 자신에게서는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다. 18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그는 모든 사람을 매혹시킬 수 있는 궁극의 향을 손에 넣기 위해 살인을 서슴지 않는다. 그가 참극을 벌이는 장소는 프로방스의 그라스(Grasse)이다. 그라스는 향수를 제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하는 도시이다. 휴양지인 니스에서 멀지 않은 그라스 주변에는 향수의 원료가 되는 장미와 제스민, 라벤더 등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다. 기후가 온화해 봄부터 늦가을까지形形色색의 꽃들이 만발한다. 프랑스 파리의 프라고나르 향수 박물관은 오랜 역사를 가진 향수 회사 '프라고나르'가 운영하는 곳이다. 프라고나르는 그라스에서 태어난 화가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회사 역시 1926년 그라스에서 태동했다. 현재 프라고나르 사는 대를 이어가며 향수를 제작하고 있으며, 파리와 그라스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1983년 개장한 프라고나르 향수 박물관은 파리 9구 스크

리브(Rue Scribe) 거리에 위치해 있다. 파리 국립 오페라단의 주요한 공연 무대인 오페라 가르니에(Opéra Garnier)가 서 있는 곳이다. 19세기 중반에 건설된 나폴레옹 3세의 저택을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인데, 내부 장식은 그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프라고나르 향수 박물관에서는 예술품 같은 자그마한 병에 담긴 향수를 시대별로 구경할 수 있다. 향수병은 당시의 최신 유행을 반영하기 마련인데, 디자인의 변화 양상이 꽤나 흥미롭다. 또한 박물관에는 과거에 향수를 만들던 도구와 생산 장면을 담은 사진, 제조법을 기록한 책 등이 전시돼 있어서 향수의 전반적인 발달사를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프라고나르 향수 박물관을 둘러볼 때는 가이드 투어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 향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기를 맡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박물관과 이어진 상점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R